

여수산단內 시유지 매각 후유증

효율성 떨어진 공장부지 450억에 금호석화 낙찰

입찰 하루전 변경공고 행정 불신 초래 뒷말 무성

여수산단내 마지막 금짜라기 땅으로 불리는 시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이 상처로 얼룩져 지역사회에 적잖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수산단 두암(9000여평)·적량지구(7만4000여평) 원형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성진건설(주)과 금호석유화학·금호P&B가 각각 낙찰됐다.

GS칼텍스 남문 정문앞에 위치한 적량지구의 경우 금호석화를 비롯해 GS칼텍스, 한국실리(주), (주)영풍엔지니어링 등 4개업체가 응찰해 예정가(238억원)보다 2배 가까운 450억여에 낙찰됐다. 평당 30만원선

인 원형지가 6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낙찰가를 보고 '미쳤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원형지를 조성해 분양한 산단부지가 평균 50만원선에 거래되는 것에 비춰볼 때 낙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찰 결과만 놓고 볼 때 여수시는 일단 대박을 타트린 셈이다. 하지만 시 공영개발과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입찰방법으로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 경쟁력을 무색케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입찰 하루전 뚜렷한 이유없이 변경공고를 내 행정 불신을 자초한

것도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본지가 입수한 '적량지구 개발계획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땅의 실제 가용면적은 약 50%선에 불과하고 실제 공장 용지로 개발할 경우 약 35%에 달하는 사유지를 협의 매수해야 한다. 따라서 조성당가는 평당 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금액은 도심 택지개발비와 맞먹는 수준으로 개발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수산단은 금호석화 등 현재 개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 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개발 효율성이 떨어진 이 땅을 왜 매입했느냐는 것이다.

기업윤리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

다. 실제 이 땅은 지난 2004년 여수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GS칼텍스와 함께 그린벨트를 공업용지로 변경했고 지속적으로 GS칼텍스 측에 매수 이행요청을 해 왔다.

하지만 GS칼텍스는 매입 여유자금난으로 여수시 요청을 수용하지 못했고 결국 공개매각된 것이다. GS칼텍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공들여 놓은 땅을 뺏기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GS칼텍스는 뒤늦게 전사적으로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아깝게 30억원 차이로 석패했다.

여수산단 관계자는 "실사 입찰이 됐더라도 땅을 공업용지로 변경해 놓은 GS칼텍스와 사전 조율이 됐어야 했다"며 "이번 일로 산단 대기업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어의 고장’ 광양으로 오세요
지난 30일 ‘전어의 고장’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에 전어 조형물이 세워졌다. 상징물 주변에는 아간조명과 분수시설을 함께 갖춰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광양시의 역동성을 표현했다. <광양시 제공>

벌교에 태백산맥 문화거리 조성

67억원 투입 750m 정비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주 배경인 벌교읍에 ‘태백산맥 문화거리’가 조성됐다.

보성군은 지난 2006년부터 벌교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국비 47억원, 군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67억원을 들여 문화거리와 소로길 750m를 정비했다.<사진>

이번에 완공된 문화거리는 벌교우체국에서 벌교읍사무소 구간으로 남도어관과 금융조합 등 소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과 문학인이 자주 찾는 문화 기행로이다.

특히 군은 원활한 차량통행에 위해 도심주차장 3개소를 새롭게 만들고, 깨끗하고 밝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로등 34개를 신설했으며, 주민과 관광객 쉽게 공간도 마련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또한 김범우·염상진·염상주 등 대표작인 소설 등장인물 7명에 대한 인명판을 곳곳에 설치해 문학 기행객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했다.

정중해 보성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벌교역 광장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문화거리와 연계해 명실상부한 명품길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와 꼬막의 고장에 걸맞은 신규 사업 발굴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벌교읍을 '전국 문화기행 일번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광양 협회장배 골프대회

김연겸씨 개인부분 우승

지난 29일 승주CC에서 열린 '제 5회 광양시 골프협회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김연겸(44·포스코)씨가 79타로 개인(신필리) 부문 우승을 차지해 트로피와 20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았다.

또 76타를 기록한 정학영(46·마이다스 피팅샵)씨가 스트로크(메달리스트)부문에서 우승해 트로피와 1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도 통기스트(남자 김삼익 255m·여자 최미숙 180m), 니어리스트(남자 나대업 1m·여자 차두려 1.5m), 베스트 드레스상(정규현·강현미), 행운상(김준수·김현숙)을 각각 받았다.

광양시 골프협회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250여명이 참가해 뜨거운 골프열기를 반영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4079@

친환경 ‘탄소 중립 건축물’

여수 YMCA생태관 개관

도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탄소 제로’ 건물이 세계박람회 도시 여수에 들어섰다.

여수YMCA는 지난 30일 여수시 소라면 가사리에 생태교육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일 여수YMCA에 따르면 생태교육관의 모든 냉·난방은 땅 속의 열에너지로, 하루 70도 이상의 온수가 태양열에 의해 공급된다.

건물 전체의 빛을 저장하는 90t

짜리 빛을 저장시설이 생활용수로 재활용되고,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LED 가로등이 주변을 밝히도록 설계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물 외벽에 식물을 직접 심어 옥상공원과 함께 건물 전체를 녹화했다. 건물 유리는 3중 단열창 방식을 도입해 실내 온도와 5~6도 정도 단열효과가 있도록 했다.

여수YMCA에는 이를 바탕으로 이 건물을 정부로부터 탄소중립 건축물



인증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 교육관은 시민과 기업 등이 함께 힘을 보탠 작품이라는 점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총 건축비 31억원 가운데 5억5000만 원을 일반시민들과 기업에서 십시일반 모금했다. 해들누리 도서관은 LG화학이 전국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의 하나로 건

축을 후원하고 8000여 권의 책을 기증했다.

시민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세운 가사리 생태교육관은 앞으로 연평균 20만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찾는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 북

졸업 즉시 취업, 특성화 과정 지원

도, 조선·탄소·LED·인쇄전자 분야 참여 대학·기업 모집

전북도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이뤄지는 특성화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한다.

취업연계 특성화과정은 조선, 탄소, LED, 인쇄전자 등 4개 분야에서 학사 8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1개 과정은 20명을 정원으로 하며 교육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 강사를 선정하고 현장실습 등을 한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이 과정을 마친 대학생들을 분야에 따라 60~100% 채용한다는 약속서를 제출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60~90%를 장학금으로 받으며,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도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도는 이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에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대학과 참여 기업이 부담한다.

오는 2012~2013년 우선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도는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부터 10월 26일까지 대학과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11월1일 대학을 신청한 뒤 내년 3월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자세한 것은 전북도(www.jeonbuk.go.kr)나 전북 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1333명 참여 가장 큰 뚝만들기 성공

지난 1일 '제13회 김제 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333㎡ 크기의 대형 뚝을 만들고 있다. 이번 뚝모자이크 만들기에 1333명이 참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전북 시설 인권연대가 원생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자 목발에 감금하는 등 김씨의 인권유린 행위를 감찰해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 A(당시 25세)씨

전북판 도가니... 독립영화 ‘숨’ 주목

지난달 1일 개봉... 김제 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 인권 유린·비리 다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영화로 제작한 '도가니'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소재로 앞서 개봉한 영화 '숨' (감독 함복록)이 주목받고 있다.

독립영화 '숨'은 김제시 장애인시설인 '기독교 영광의 집' 대표인 김모(55)씨가 1급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화 '숨'은 지난달 1일 개봉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전북 시설 인권연대가 원생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자 목발에 감금하는 등 김씨의 인권유린 행위를 감찰해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 A(당시 25세)씨

에게 자금적출 수술까지 받게 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재판결과 김씨는 징역 3년, 김씨의 부인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제시는 지난 2008년 이 시설을 폐쇄하고 원생 53명 중 31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을 전주와 충남의

사회복지시설 3곳에 위탁했다.

함복록 감독은 "스스로 판단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 폭력과 비리에서 시작했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성기자 hnews@

전주 한옥마을 광고 규제

전주시는 지난 30일자로 한옥마을 일대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간판의 재질, 규격, 수량 등을 규제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한옥마을의 간판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나

무, 돌, 황토, 기와와 같은 자연 소재를 쓰고, 디자인은 전통적인 조형성을 최대한 고려해 제작해야 한다. 아크릴이나 유리,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간판 수는 업소당 2개를 넘길 수 없으며, 직접 조명, 네온사인, 점멸 등 광고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혁신도시 상업용지 70% 분양

전주·완주혁신도시 혁신도시에 조성한 전체 상업용지 9만 1000㎡(100필지) 가운데 70.3%인 6만4000㎡가 분양됐다. LH는 잔여부지 9000㎡(10필지)를 오는 12일 제입찰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628만 원 가량이다.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1만8000㎡(9필지)의 상업

용지도 조만간 분양될 예정이다. 미분양 토지는 내년 1월 10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된다.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10.15km)에 조성되는 전주·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한·미공군 합동 8~9일 '새만금 에어쇼'

한·미 공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2011 군산 새만금 에어쇼'가 오는 8~9일 군산 비응항내 다용도부지에서 열린다. '희망 새만금! 아름다운 비행'을 주제로 이번 행사는 에어쇼와 항공기 체험, 부품 전시회 등으로 꾸며진다. 한국 공군 38전대와 미공군 제

8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환상의 에어쇼는 오전 11시~오후 3시 새만금방조제 상공에서 펼쳐진다. 특히 공군이 자랑하는 초음속 훈련기 T-50을 탄 '블랙 이글'팀이 20여개의 곡예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성태기자 nogusu@

정읍 등서 15일부터 전국 초등 축구리그

'2011 대교 눈높이컵 전국 초등 학교 축구리그'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4개 초등 학교 축구팀 선수와 임원, 학부모 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읍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6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대회 일정은 '공부하며 축구를

즐기는 학생 선수를 육성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64강 10월 15일 ▲32강 16일 ▲16강 22일 ▲8강 23일 ▲4강 29일 등 주말에 각각 열린다. 결승전은 11월 초 삼당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성태기자 parkks@

고창 특산물 전국 롯데백화점서 판매

고창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전국의 롯데백화점에서 살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지난 30일 롯데백화점에 고창 농특산물을 공급 유통하기로 백화점 측과 협약했다. 협약에 따라 백화점은 군 출자회사인 고창 황토배기유통

에서 수박·복분자·고추·고구마·가공식품을 사 연중 전국 백화점에서 판매한다. 백화점 지난 2005년부터 서울·부산점에서 고창 농·특산물 기획전을 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

고창산 복분자로 담긴 '은사마 막걸리' 日 수출

고창 복분자로 담긴 막걸리가 일본시장에 진출했다.

국순당 고창명주(주)는 지난 26일 심원면 생산공장 앞마당에서 '은사마(고시례) 복분자막걸리' 첫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컨테이너에 실린 복분자 막걸리 수출물량은 750 상자(2000만 원 상당)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강수 고창군수, 국순당 고창명주(주) 대표 현홍순, 복분자 생산 농가 대표가 참여했다.

국순당은 수출전략으로 한류 선두주자이면서 일본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달린

트 배운준씨와 마케팅계약을 체결한 후 막걸리 상호를 결정했다.

국순당은 복분자 막걸리를 일본에서 영업중인 편의점 패밀리마트와 대형 유통업체인 E마트에 공급해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고창명주(주)는 고창에서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는 435명의 농민이 주주로 참여해 지난 2006년 2월 설립한 회사이다. 국순당 고창명주(주)는 생산과 발효를, (주)국순당은 제조기술 지원, 마케팅, 유통을 담당한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